

# 익산시, 올 지역화폐 2000억어치 발행

‘익산多e로움’ ...인센티브 20% 제공  
지난해 1800억원서 200억원 늘려  
모바일 간편 결제 방식도 대폭 확대

익산시는 올해 지역화폐 ‘익산다(多)e로움’을 2000억원어치 발행하고 총 20%의 인센티브를 연중 제공한다

20%의 인센티브는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제공한다. 설이나 추석 명절 등에는 월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결제액 상위 30개 업체에는 내년 1분기에 10%의 인센티브만 적용한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기프트카드를 첫 도입하고 ‘익산 다e로움’ 착한 가맹점을 모



집해 홍보와 각종 혜택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는 없애고 소비자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방

식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기 부양책으로 ‘설 명절 전통시장장보기 인증 이벤트’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페이백 추가 지원 이벤트 정책을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한다.

익산시는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익산다e로움’ 페이백 제한 업체를 10개에서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1분기 페이백 제외업체는 올해 사용결제액 상위평균 30곳, 2분기부터는 전 분기 다e로움 사용결제액 상위평균 30곳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사전에 제한 업체가 공지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북 최초로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의 생활 안정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남원시 제공)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남원에 등지

경북서 이전 2년간 관련 업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경북에서 전북 남원으로 이전한다. 추진단은 앞으로 2년간 남원에서 세계유산 등재 활동을 한다.

남원시는 국내 7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관련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는 추진단의 사무국이 남원으로 이전해 올해부터 2년간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포함한 7개 고분군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한말 말산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등이다.

협약은 이들 7개 기초자치단체와 전북도, 경남도, 경북도 등이 3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추진단은 등재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경남과 경북에 이어 앞으로 2년간 남원에서 등재 추진업무를 이어간다.

그동안 등재신청서 작성과 연구자료집, 화보집 제작, 통합보존관리계획,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는 세계유산등재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현지실사(9월 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정읍 공동체활성화센터, 마을여행 사업 ‘활발’

정읍시가 마을 주민들의 자립성 향상과 마을단위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마을여행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는 마을여행사업의 주체가 될 거점마을인 감곡 순촌마을, 웅동 매당마을, 참보 검단마을, 산외 원정마을, 입암 대흥마을 등 5개 마을에 ‘마을여행’ 현판을 달았다고 3일 밝혔다.

마을여행사업은 도시민이 농촌을 방문해 놀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을 스토리와 대표 음식을 개발·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문가들의 마을 자원조사와 주민 컨설

팅을 통해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특색 있는 음식이 각각 발굴됐다.

웅동 매당마을은 매실담고기무침, 감곡 순촌마을은 목은지 등갈비찜, 산외 원정마을은 당산할매 청국장, 입암 대흥마을은 동치미국수, 참보 검단마을은 땅콩 칼국수 등이다.

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는 개발된 대표 음식을 1인 분량의 상차림이 가능하도록 레시피 구성을 마쳤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간편식화하는 고도화 사업도 병행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새만금에 815억원 투입 재생에너지 실증연구기반 구축

2022년까지 수전해 설비 등 조성

새만금에 태양광과 수소 등 미래 재생에너지를 한 곳에서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북도·새만금개발청·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해 미래 상황을 시

뮬레이션 할 수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오는 2022년까지 국비 280억원 등 총 사업비 815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인근 6만6000㎡에 전력망, 전력전환 설비, 수전해 설비, 수소 출하 설비, 버스 수소충전소 등을 조성한다.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 재생에너지 저장 설비, 전력변환 설비, 전력망 등도 구축하고 그린수소 기반시설도 갖는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 익산시, 새해 ‘아이사랑 콜택시’ 운영...임산부·영유아 교통편의 증진

익산시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이사랑 콜택시’를 4일부터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사랑 콜택시는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만들기’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택시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카시트 등 안전장치를 장착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익산시는 만 6세 미만 어린이 유아용 카시트 장착 의무에 따른 택시 이용 시 카시트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임산부와 만 6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운행요금은 기본요금 700원(2km까지), 추가요금 1km당 100원, 상한액은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신청서와 산모수첩(임산부), 주민등록등본(아동 동반 시)을 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해 사전등록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와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일상생활 이동 불편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